

제2강 성착취와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성매매: 캐서린 맥키넨과 캐슬린 배리

Part 1. 캐서린 맥키넨의 『포르노에 도전한다』

1.1. 캐서린 맥키넨

- Catharine Alice MacKinnon
- 1946년 출생
- 미시건 법학대학교 교수
-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 국제형사재판소 젠더 어드바이저
- 국제법, 헌법, 정치학과 법학 전문가로서 맥키넨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멸시, 강간, 매춘, 인신매매와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과 착취로 간주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길이라 여겼다.
- 그녀는 포르노그래피가 인권침해(civil rights violation)이며 교육의 영역과 고용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적 멸시가 성적 차별을 구성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했다.
- 1979년에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을 썼고, 1987년에 *Feminism Unmodified*, 1989년에는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1993년에 오늘 살펴보는 *Only Words*를 썼으며, 2005년에는 *Women's Lives, Men's Laws*, 2017년에 *Butterfly Politics*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 래디컬 페미니스트였으며, 포르노가 여성의 성착취라는 인식을 공유한 안드레아 드워킨과 포르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포르노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과 엄격히 구별함으로써 포르노가 끼치는 해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포르노는 영상물이나 말을 통해 여성을 복종시키는 생생한 성적 묘사물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여성이 성적대상, 물건, 상품으로 비인간화되어 묘사되는 경우 ② 여성이 모욕이나 고통을 즐기는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는 경우 ③ 여성이 강간, 근친상간, 기타 성적 공격을 당할 때 성적 쾌감을 느끼는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는 경우 ④ 여성이 결박당하거나, 남자당하거나, 신체가 절단되거나, 멍이 들거나 기타 육체적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성행위 대상으로 묘사되는 경우 ⑤ 여성이 성적으로 종속되거나, 노예화되거나, 진열된 자세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 ⑥ 음부, 유방, 둔부를 포함해서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전시되어 여성이 그러한 신체 일부로 왜소화되어 묘사되는 경우 ⑦ 여성이 물건이나 동물들에 의해 삽입되어 묘사되는 경우 ⑧ 여성이 타락하거나, 모욕을 받거나, 상처를 입거나, 고문당하는 시나리오 속에서, 여성을 음탕하거나 열등하고, 피를 흘리고,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로 직접 묘사하는 경우. 이 정의에 따르면 '여성 대신에 남자, 어린이, 성환자' 등을 사용하는 것도 포르노다.

1.2. 목차

- 서문
- 제1장 포르노, 명예훼손인가 차별인가
- 제2장 성적·인종적 괴롭힘
- 제3장 평등과 표현의 자유

1.3. 주요내용

1.3.1. 말의 효과

- 단지 말only words일 뿐이지만, ... 오클랜드 경찰청은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 여성을 향해 "죽여, 죽여버려!"라고 소리친 십수명의 사람들이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구경꾼들이 강간행위를 구경하고 있었다고 하자. 이때 "따먹어! 따먹어버려!"라고 소리쳐댔다면, 이건 강간에 가담한 게 아닌가?
- 그들이 미리 준비된 살인을 돈을 내고 구경하고 또 환호한 것이라면? 성폭력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당하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영상으로 담아 팔아먹는 기업들을 상상해보라. 이 또한 거기에 가담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영화들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따먹어! 따먹어버려!" "죽여! 죽여버려!"라고 환호하는 수백만의 사람들. 이들 역시 거기에 가담하는게 아닐까?

1.3.2. 포르노란 무엇인가?

- 포르노는 영상물이나 말을 통해 여성을 복종시키는 생생한 성적 묘사물
- 성폭력과 불평등의 실천 행위로서, 노예매매의 매개체로서의 포르노
- 불평등한 성행위를 통해 표현된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권력

1.3.3. 포르노의 해악

- 상당수의 포르노가 인종적·민족적 적대감을 섹스와 연결시킨다.
- 포르노는 공격행위를 쾌락으로 제시함으로써 힘없는 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ex. 나치는 유대인 말살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섹스와 연결지어 선전하기도 했다)
- 과거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치하에서 시각 포르노는 국가독점이었다. ... 유고에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유고슬라비아는 붕괴되었지만 그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포르노 시장이 되었다고 한다. 전쟁 중에는 세르비아 파시스트 군인들이 이슬람 여성과 크로아티아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하기 위해 수용소에 감금했다. 이런 강간·살해 캠프에는 포르노가 판을 치고 있었다. 캠프에 있었던 여성들에 따르면, 군인들은 포르노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행위를 자신들에게 그대로 실행했다고 한다. 또 그녀들에게 자행된 성적 잔학행위가 그대로 포르노로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보고된다. 강간당하는 동안 '우스타샤의 창녀' 같은 성적 모욕을 담은 민족적 경멸어들이 끊임없이 그녀들에게 퍼부어졌다고 한다. 이런 대량 학살의 표현수단도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인가?
- 포르노가 만들어내는 지배와 종속의 성씨도 역시 종종 그 옹호론자들이 나타내는 광포한 적개심과 비이성 속에서 표출된다.
- 포르노는 뿌리 깊은 성적 부속물을 만들어내는데, 여성 혐오가 바로 그것이다. 그 여성 혐오는 다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르노 옹호를 추진하고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 포르노는 언론의 힘과 법의 힘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기 원치 않는 문제이다. 그런 이유로 포르노가 끼치는 해악의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충분치 못했던 것이다. 포르노를 제작하는 데 필요하고, 포르노를 사용하는 데 불가결한 강간, 폭력,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 살인, 성적 괴롭힘, 성차별, 모욕의 증거들 그리고 대량 학살에서 갖

는 포르노의 역할에 대한 증거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포르노 옹호자들은 강간범과 살인범들에게 잘한다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다.

- 포르노는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단순한 제작물, 상징물, 징후가 아니다.
-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켜야 한다면, 포르노의 저지는 필수적이다.

1.3.4. 여성의 일생,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포르노

- 당신은 아버지가 당신을 짓누르고 짝소리도 못하게 하는 가운데 성장했다. 그 결과 다른 남자가 어느 날 당신의 가랑이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게 된다. 더 커서는 남편이 당신을 침대에 묶어 놓고는 뜨거운 좃농을 당신 젖꼭지에 떨어뜨리면서 다른 남자들을 불러들여 당신한테 계속 웃으라며 구경거리 삼는다. 주치의는 당신을 마약에 빠지게 해놓고는 자기 성기를 빨아주기 전에는 마약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겪은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 수천 년 침묵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카메라가 발명되고,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카메라에 담겨지게 된다. 당신이 고통받는 동안 그 고통의 리듬에 맞춰 셔터 누르는 소리나 카메라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당신은 그 영상물들이 다른 어디선가 매매되고, 사람들에게 돌려가며 보여지거나 서랍 속에 감춰져 있으리란 걸 잘 알고 있다. 그 영상물 속에, 당신이 겪었던 일들은 영원히 남게 된다. 남자들이 그것들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또 누구나 그 속에 담긴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 그 남자가 당신을 포르노 제작에 사용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은 그 영상물들을 통해 늘 다시 행해지고 되살아나며 또 느껴지고 있다. 당신이 받은 폭력은 그 남자에게 흥분이고, 당신이 받은 고문은 그 남자에게는 쾌감이다. 당신을 보는 것은 이제 그 남자에게는 자위 거리가 된다. 그 남자는 언제든지 당신 사진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손쉽게 욕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런 영상물들은 강간의 증거라기보다 당신의 욕망과 동의를 증명하게 된다.
- 당신은 마침내 다른 여성들에게도 눈이 미친다. 그 여성들의 아버지·남편·의사들은 그 사진들을 보고 좋아했고, 그 여성들에게 거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짓을 했다. 전에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또 하고 싶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이다. 그 여성들이 짓눌리거나 결박당하거나 테이블 위에서 검사 받고 있는 동안 남자는 당신이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영상물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 여자가 한 것처럼 해봐", "저 여자가 즐기는 것처럼 즐겨 봐",

1.3.5. 포르노는 단지 표현물이 아니다.

- 포르노와 연관된 경험을 가진(맥키넨은 포르노 영화에 출연한 여성들이 겪은 경험과 포르노 영화에서 재현된 장면을 잠자리에서 강요 받은 여성의 경험을 동일시하고 있다) 여성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고 하면 "그런 일 없었어", "네 상상일 뿐이야", "너도 원하지 않았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 당신은 언어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포르노가 여성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주장은 비유적이거나 신비한 주장으로 보인다. ... 포르노가 여성을 직접 써야만 만들 수 있는 사진이라 할지라도, 또 문학작품의 소재가 여성의 신체일 때도, 또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여주기 위해 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여성이 파과될 때도, 포르노는 단지 말로 정의된다.

- “죽여!”라는 말은 사형장 사격수들에게 “거총, 조준, 발사”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동등한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뇌물금지법에서는 법안 표결때 “찬성시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
- 재판할 때의 “무죄!” 또는 결혼할 때의 “맹세합니다!”와 같이 단지 말에 불과한 다른 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말들은 한결같이 그 말이 안고 있거나 퍼뜨리고 있는 사상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말에 의해 대표되는 제도나 관습으로 취급된다. 그 말들은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냥 얘기한다고 간주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본다.
- 많은 사회적 불평등은 말과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지고 강요된 것이다. 사회 계층은 의미로 구체화되고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백인 전용’이라는 간판은 단지 말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 가게는 흑인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현한 것’이라든지 또는 흑인과 백인 모두 손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포르노에 나오는 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과 마음 속의 현실을 분리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육체에는 현실이 행해지고 있다. 포르노 업자는 언제나 개개의 살아 있는 여성들을 사용하며, 환상화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포르노 제작을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는 포르노에 대고 자위행위를 하고, 머리 속에서 또는 그가 만나는 여성들의 육체에다 포르노를 재연하며, 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포르노를 실천한다.
- 포르노에는 남자의 성기가 여성 속으로 격렬하게 들락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 일반 매체에서는 폭력 장면이 특수 효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포르노에서는 구타당하고 고문당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여성은 실제로 구타당하고 고문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성행위가 ‘진짜’라고 한다면, 어떤 포르노도 ‘진짜’ 섹스가 아니다. ... 포르노에서 보이는 것이 진짜로 일어났는가 하는 의미에서 볼 때도 포르노는 진짜가 아니다. 카메라에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섹스행위 도중에 자세를 돌려서 카메라에 잘 보이게 해야 하고,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야 하고, 자세를 잡아야 하고 또 고려 잡아야 한다. 사정 장면에서는 다른 남자배우가 사정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다 견뎌야 하므로 계속 약을 먹는다. 이런 일들이 포르노를 만들 목적이 없는 섹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포르노를 옹호하기 위한 이 주장은 마치 섹스에 대한 고발처럼 들린다.
- 살인실연 포르노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거기서는 섹스영화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죽인다. 살인실연 포르노란 성적 살인을 실제로 감행하며 만드는 영화다. 살인하는 자들에게는 살인행위가 성행위다. 절정은 죽음의 순간이다. 이 영화를 스스로 원해서 보는 소비자는 그것을 보면서 성적 경험을 갖는다. 성행위로서 성행위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살인을 통해 성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 영화를 보는 자는 살인을 보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1.4. 쟁점

1.4.1. 성폭력과 강간과 동의어가 된 포르노

- 맥키넨은 이 책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 어린 시절 겪은 가정폭력(아버지가 당신을 짓누르고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가운데 성장), 남성과의 첫 경험(다른 남자가 어느 날 당신의 가랑이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게 된다), 남

편의 변태적인 성행위(당신을 침대에 묶어 놓고는 뜨거운 촛농을 당신 젖꼭지에 떨어뜨리고,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 당신에게 웃으라며 구경거리 삼는다), 주치의의 성폭력(당신을 마약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기 전에 마약을 주지 않는)까지.

- 맥키넨은 여성을 종속시키고 복종시키는 행위를 모두 여성에 대한 폭력, 즉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을 복종시키는 행위를 재연한 포르노 역시 성폭력, 강간으로 간주한다.

1.4.2. 포르노를 찍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행위의 재연 역시 성폭력의 결과

- 포르노는 공격행위를 쾌락으로 제시함으로써 힘없는 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 여자에게 돈을 주고 처음에는 저항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굴복하도록 시킨다고 해서 그 섹스가 서로 교감하는 섹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포르노를 매춘의 수단으로 만든다. 그 섹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돈이 강제력의 매개체가 되고 동의를 외양을 제공한다.
- 현실을 각본으로 삼아 실제 강간이 행해진다.

1.4.3. 실제 성폭행이나 강요된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성행위를 위해 실제로 여성을 죽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과 아동포르노)과 성행위를 재연한 영상물을 동일한 범주로 유형화하는 문제

1.4.4. 어떤 섹스가 '진짜' 섹스인가? '진짜' 섹스와 '가짜' 섹스를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이 초래할 부작용은 없을까?

-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성행위가 '진짜'라는 맥키넨의 표현에서 우리들은 그가 바람직한 섹스 혹은 이상적인 섹스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rt 2. 캐슬린 배리의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2.1. 캐슬린 배리

- 1941 출생
-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스트
- 펜실베이니아 인간개발학과 교수
- 비정부단체인 여성매매반대연맹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창립자
- 1979년에 쓴 『여성 성 노예제Female Sexual Slavery』는 6개 국어로 번역
- 캐서린 맥키넨과 안드레아 드워킨과 뜻을 함께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였으며 이들과 함께 sex positive feminist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겪었다.(대표적인 사건이 1982년 미국 버나드 대학에서 있었던 성전쟁(Sex War). 반포르노와 반반포르노 입장, SM과 반SM의 입장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대립했던 사건. 반포르노와 반SM의 입장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온전하게 향유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고, 후자의 입장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은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성 성해방의 필요성을 주장)

2.2. 목차

서론 / 1장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 2장 성적 권력 / 3장 조세핀 버틀러 / 4장 성의 산업화 / 5장 여성 매매 / 6장 포주 행위: 가장 오래된 직업 / 7장 국가: 가부장적인 법과 매매춘 / 8장 패트리샤 허스트: 여성 성 노예화의 원형 / 9장 인권과 전지구적인 여성주의 행동

2.3. 주요내용

2.3.1. 여성이라는 계급

- 여성의 삶은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이 남성의 지배 밑에 놓여있다.
- 여성은 단지 소모품일 뿐이다.
- 여성은 쓰고 버리는 것이다.
- 여성이라는 조건은 곧 계급 조건이다.
- 여성은 가부장적인 봉건주의하에 종속되어 지배당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피지배계급이다.
- “여자란? 답: 섹스해 주는 기구.”
- 여성은 섹스 그 자체이다.

2.3.2. 가부장제 사회의 특성과 여성 지배와 종속의 상관관계

- 성적 탐닉에 빠진 사회. 사회의 성적 탐닉 상태는 남성 지배의 정치적인 성과이다.
- 사회 전체가 성적 탐닉에 빠져 있을 때 섹스는 여성의 몸과 동일시된다. 그것은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 성애화된 사회
- 성애화된 사회 속에서 여성은 섹스를 위한 몸통이일 뿐이다.
- 성애화된 사회는 여성성을 그 핵심으로, 획득물로 구성한다. 그것이 섹스이다.
- 여성은 섹스화된 몸으로서 보편화되었고, 섹스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들은 서로 구별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성 본질주의이다. 성 본질주의는 불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서 억압을 생산해낸다.

- 여성과 반대로 남성은 섹스를 필요로하고 또 추구할 것이며, 섹스를 얻고 가지며 오용할 것이며, 심지어 섹스를 위해 이용되기도 하지만 남성은 성애화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집단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들은 결코 섹스 또는 섹스화된 몸이 아니다. 남성들은 몸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총동 그 자체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남성의 성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인데, 이렇게 그들의 성적 욕망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거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 몸의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의해서 형성된다.
- 성애화된 사회는 불평등을 성별화한다. 여성에게 성적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반면, 남성은 행위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 가부장적 지배는 여성들은 서로 간에 구분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면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구별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만든다.
- 가부장적 지배는 남성 권력의 조건이다. 사회 정치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만 주어지는 섹스는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조건은 생물학적 조건보다 우선한다. 성적인 욕망은 욕구와 필요성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구축된다. 남성이 여성의 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섹스는 문화의 사회적 구성물이며 성별 위계 질서의 정치적인 산물이다.
- 포르노그래피 매체들은 성적 탐닉에 빠져있는 사회의 도구이며, 강간은 성 착취의 전형적인 증거인 한편, 매매춘은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여성 억압의 제도적·경제적·성적 모델이다.

2.3.3. 매매춘은 성착취의 집약된 형태이며 성적 권력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형태이다.

- 『여성 성 노예제 Female Sexual Slavery』 작업 이후 매매춘의 섹슈얼리티에서 섹슈얼리티의 매매춘화를 다루는 작업으로 옮겨갔다.
- 나는 모든 성 착취의 집약된 형태로서, 그리고 성 착취의 가장 극단적인 모델로서 매매춘 문제를 채택하였다. 성착취는 정치적인 조건이요, 여성 종속의 토대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축하고 작동하게 하는 기반이다.
- 성애화는 대중 매체,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섹스의 '과학적인' 구성물(남성의 성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이 생리적 과정과 생물적 기능 회복을 위해 여성은 '대리물'로 활용된다) 안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통해 사회에 전달된다. 나아가 섹스를 사물로, 여성을 대상으로 환원시키는 섹슈얼리티의 구성물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실재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조건이다. 남성 권력의 사회적인 실제(fact)로서의 섹스를 공식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여성을 공식적인 실제로서 성애화한다.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 가부장적으로 완벽하게 환원한 것이 매매춘이다.

2.3.4. 동의와 비동이는 중요하지 않다.

-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 계급 지배는 실제로 피지배 계급으로부터 공모·협조·동의를 만들어낸다. 매매춘은 결혼이나 사회적으로 구성된 섹슈얼리티처럼 여성이 동의하게끔 구성된다.
- 이 연구를 하면서 나는 억압의 범위를 개인적인 강제에서 계급 지배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폭

력을 결정짓는 거의 유일한 기준인 동의나 강제나로부터 온전히 인간적이고 상호적인 몸의 경험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2.3.5. 여성인권과 성착취

- 인간 경험의 전체성에서 보자면 여성이 그들의 몸으로 환원될 때 그리고 섹스화된 몸에 대한 성적 착취가 이루어질 때, 여성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타자로, 결국 종속된 자로 취급된다. 이것이 성적 착취이고,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여성 인권의 침해이다.
- 성적 차이, 인종적 차이는 백인 남성과는 다른 모든 여성과 유색인들은 타자이며 열등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여기에 성적 탐닉에 빠져 있는 사회에서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 환원하는 것의 심각성이 있다. 여자가 무엇을 하든 또 누구이든 상관없이 여자는 그렇게 여겨진다. 이러한 '타자성' 속에서 피억압자들에게 시간이 멈춰있게 된다. 피억압자들을 생물학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표현함으로써, 차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을 '타자'로 환원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권력은 여성들을 그들의 역사로부터 단절시킨다.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인간성을 빼앗는 방식이다. 역사를 만든다는/행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면에 피억압자들에게 억압은 역사적 조건일 뿐이다. 억압 속에서 시간은 한 순간으로 축소된다. 그것은 역사를 빼앗긴다는 것, 시간 밖에 존재한다는 것, 마음 속에서만 일어날 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정복의 형태이다. 이것이 인종차별주의, 인종 격리주의, 식민주의의 권력 관계들의 토대가 되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이다.
- 성적 억압은 생물학적 결정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 운동을 멈추게 하고, 그럼으로써 여성들의 진보와 변화,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전멸시키려고 시도한다. 성적으로 종속된 여성은 더 이상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들은 억눌린 비시간성을 내재적인 특성으로 다양한 정도로 내면화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종속된 자들은 인간성의 잠재성과 온전함을 확실하게 박탈당한다.
- 섹스는 자아가 구체화된 차원으로서, 신체적 또는 생리학적인 사실에 선행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것이 자극될 때 나타나는 인간 경험으로서 미리 결정된 사실이 아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욕구'나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도 성경험의 본질도 아니다. 오히려 섹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가부장제에서 이것은 종속이라는 정치적 사실이다.
- 인간의 경험 안에서 성적 상호 작용이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이라는 것은, 이때 자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다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는 자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상호 작용과 분리해서는 자아를 생각할 수 없다. ... 억압은 인간의 삶을 본질화하고 그것이 종속시키는 사람들을 결정짓는다.
- 오늘날 남성 지배하에서 섹스가 진정한 인간적 의사 소통으로 취급되지 않을 때, 그것은 경험을 비인간화하고 그럼으로써 여성을 지배하게 된다.
- 매매춘 속에서 상품화는 마케팅을 통해 섹스를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그들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자아로부터도 분리시킨다.

2.4. 쟁점

2.4.1. 출구없는 비판

- 배리는 여성을 가부장적 지배 하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착취를 당하는 존재로 설정
-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제 사회이므로 여성은 이 운명을 부정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 가부장제를 해체하거나 타파하지 않는 이상 이 현실은 탈피할 수 없는데, 배리는 그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 또한 배리는 가부장적 지배 사회는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적 탐닉에 빠진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상호작용(관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섹스 행위 조차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이자 착취라고 못박는다.
- 배리는 이와 같은 논리적 설정에 따라 특정한 성행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파한다. 지배적인 구조 하에서는 피억압자의 동의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 남녀가 인간적 존엄성과 개인적 존중을 침해하지 않는 섹스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은 구조화된 가부장적 권력의 외부에 놓인 것이다.
 -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며 개인적 선택을 옹호하는 정치학과 캠페인의 해악은, 이것이 시장 경쟁과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표현이 됨에 따라 피억압 집단들에게 더욱 가혹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적 선택이 그 어떠한 집단적 선이나 사회적 안녕보다 우선한다는 이데올로기 환경을 조성한다. 이때 자유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부터 서구와 제3세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정치적으로 부과된 불평등의 맥락에서 행해지는 개인적 선택으로 정의된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의식을 개인적 선택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구성된 동의의 문제로 돌려 버리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 이데올로기가 후기 산업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지배를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성폭력 반대 운동에서 “싫다는 말은 싫다는 것 No means no이라는 슬로건은 여성들이 자신이 거절하는 남성에게 원치않는 성적 경험으로 농락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강력한 주장이지만, 동시에 여성은 동의가 없었을 때, 분명하게 싫다고 말을 했을 때에만 성적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은 곧 여성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때 여성들은 폭행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간을 동의에 대한 침해로 정의하는 것은 성을 착취하고 피해자가 되게 하는 행위로부터 개인적 의지의 문제로 정치적 의식의 강조점을 이동시킨다. 이것은 억압의 문제를 성 착취의 계급적 조건에서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바꾼다.
- 전세계의 여성을 똑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배리의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으로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현재도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배리는 해당 저서 곳곳에서 이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4.2. 추상화된 개념들

- 배리의 책에서 가부장제, 가부장적인 지배라는 개념들은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다.
- 이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여성 억압 종식, '인간적 존엄성'과 '개인적 존중'을 침해하지 않는 섹스는 가부장제라는 지배 구조가 종식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배리는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정도로만 기술

- 솔라미스 파이어스톤과 달리 배리는 케이트 밀렛처럼 남성 지배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케이트 밀렛보다 성행위에 있어 더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성적인 탐닉에 빠진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성행위조차 여성에 대한 착취이고 성폭력).
 - 1991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섹슈얼리티의 정치학'이라는 회의를 조직하였을 때, 나는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섹스 그 자체가 토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폭력으로서의 섹스는 토론되었다. 하지만 섹스 그 자체, 즉 여성성 안에서 체화되는 동시에 성 경험에서 일어나는 여성 종속의 조건은 심지어 이것을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데 가장 공헌하고 있다는 여성주의적인 맥락에서조차 침묵당하고 있었다. 섹스에 폭력을 덧붙이는 것은 성 착취를 말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것은 성 착취의 조건을 생산하는 성적 권력 관계, 즉 성적 억압에 침묵하게 한다. 사실상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포르노그래피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조직화에 힘쓴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매춘에서 항상 전제되는 것처럼 동의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섹스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과 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 섹스 그 자체가 착취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침묵은 결혼 내의 섹스라는 개인화된 조건에서 시작하여 매매춘의 공식적 정상화로 확대된다.
- 이상적인 성행위는 상호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하는데, 가부장제적 지배 구조 하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무리 상호적이고 인간적인 섹스를 했다고 한다하더라도 불가능. 상호적이고 인간적인 섹스는 가부장제 외부에서만 가능한 것.
- 그러나 배리는 가부장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대신 배리는 여성이 성착취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행동은 제시한다. 전지구적인 반성매매 여성행동)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욕망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섹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졌다.

2.4.3. 성을 인격, 인권과 연결 짓는 배리의 논리

- 배리는 책 곳곳에서 페미니즘과 인권을 연결해 자신의 논지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언급
-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배리는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인격, 인권에 대한 침해는 물론이고 인간성의 말살로 간주하며 극도로 비판하고 있다.
- 배리는 이 문제를 유엔 인권법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1994년 1월 성착취 반대 협약 제안서 초안을 유엔에 제출하기도 했다.(책의 부록 참조)
- 일견 극단적으로 보여 동의하기 어려운 배리의 논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배리는 여성의 인격과 인권이 침해되고 인간성이 말살되는 성착취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 역시 동의, 비동의에 구분없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이지만 이것이 여성의 인격침해 인간성말살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강간, 매매춘, 인신매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매춘이 여성을 타자화시키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권 침해 등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

2.4.4. 성행위, 성폭력,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 매매춘을 모두 동일하게 범주화하는 문제

- 성은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력
- 성착취는 정치적인 조건이요 여성 종속의 토대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축하고 작동하게 하는 기반이다.
- 매매춘은 모든 성 착취가 집약된 형태이며, 성 착취의 가장 극단적인 모델이다.
- 매매춘은 가부장적인 봉건주의에서 발전한 제도화되고 산업화된 여성 성 착취이다.
- 매매춘은 여성 종속과 지배가 심화되어 나타난 성 착취의 극단적인 결과물
- 가부장제 지배 질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매춘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을 더욱 공고히
-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 섹스와 젠더

	섹스(신체적 차이)	젠더(문화)	
솔라미스 파이어스톤	Male vs Female	성별정체성(성계급)을 결정하거나 강화, 재생산하는 문화	섹스=젠더 (신체적 차이=성별정체성=성적지향)
케이트 밀렛	Male vs Female	섹스관계, 억압적인(성)계급관계는 성별정체성을 결정하거나 강화한다. 이것을 밀렛은 성이라는 사적인 행위 역시 권력다툼인 정치이다라는 말로 표현	섹스=젠더 (신체적 차이=성별정체성=성적지향)
캐서린 맥키넨	Male vs Female	포르노그래피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남성들의 강간문화는 여성의 종속, 억압을 강화하고 여성혐오를 생산한다.	섹스=젠더 (신체적 차이=성별정체성=성적지향)
캐슬린 배리	Male vs Female	가부장제적 지배 질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매춘화해 여성의 종속을 지속시킨다	섹스=젠더 (신체적 차이=성별정체성=성적지향)
게일 루빈	불변의 억압장치 아니다	변화 가능한 사회적 구성물	섹스와 젠더 이원화
주디스 버틀러	섹스 역시 젠더	섹스, 젠더 모두 유동하는 부유물	섹스와 젠더 이원화